

中 크루즈 유치 한계 전남도, 日 공략 나섰다

대형 이벤트 부족·1척당 수익 인센티브도 부담 日 선사·여행사·언론사 상대 팸투어·심포지엄

중국 크루즈선 유치에 한계를 느낀 전남도가 일본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전남도는 4일 “지난 3일까지 3일간 일본 크루즈선사와 여행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크루즈상품 개발 팸투어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지속적인 팸투어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에 따른 부담이 큰 중국보다 ‘순수한’ 관광 목적의 일본인들을 붙잡겠다는 것이다.

올들어 대형 이벤트가 없는 데다 면세점 등 기차지로서 기반시설이 미흡한 전남은 최근 중국 크루즈선 유치에 번번이 좌절을 맛봤다. 중국 및 국내 여행사의 수익을 보

장할 수 없는 것도 큰 이유였다. 제주, 부산 등 지자체들이 중국 크루즈선 유치에 나서면서 1척당 수익원칙 인센티브를 주는 지자체도 생겨나는 등 과열경쟁이 그 원인이다.

지난 2012년 12회(1만6000명), 2013년 18회(4만7000명), 2014년 14회(5만3000명) 등 예년에는 전남 4개 항을 경유한 크루즈 선박과 관광객은 상당했다. 여수세 계박람회, 순천정월박람회 등 대형 국제 이벤트와 압웨이 등 다국적기업의 단발성 위유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여수항, 광양항, 목포삼학도항, 목포산항 등

전남지역 4개 항을 이용한 국제 크루즈관광객은 한 명도 없다. 앞으로 전남지역 4개 항을 경유할 계획을 가진 크루즈 선박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올해 국제 크루즈관광객의 전남 방문 실적이 전무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선 한 척당 최대 1000명 규모의 일본 크루즈선 공략에 나섰다. 일본에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는 전남의 음식이나 관광지를 홍보하고 중국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중소규모의 크루즈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일본 크루즈선사와 여행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남도의 크루즈상품 개발 팸투어에서 참가자들은 여수 빅오쇼와 해상케이블카,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목포 근대역사관, 영암 왕인박

사 유적지 등을 둘러봤다.

일본 크루즈선사인 산스타라인의 노세 카츠히로 전무는 “전남은 매력 있는 관광지지만, 아직 일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일본인이 선호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전남을 알리려면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기환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은 낙안읍성과 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관광지를 포함해 해남 황조별묘와 화순 주자묘, 순천예성,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중국, 일본 친화적인 문화유적 관광코스가 많다”며 “이 유적지를 활용해 많은 국제크루즈선이 전남에 입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가 4일 합평 골프고를 찾아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프와 담 쌓은 이낙연 지사 합평 골프고 방문한 까닭은 전인지·신지애에 감명... 꿈나무들 격려

이낙연 전남지사가 4일 전인지·신지애 등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을 배출한 합평골프고 훈련장을 찾아 무더위 속에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골프장에 가본 적도 없다”고 할 정도로 골프와 ‘담’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방문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한·미·일 메이저대회를 휩쓸고 있는 전인지와 신지애 등을 보며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의 한 특성학교 출신이 세계 메이저 대회를 정복하는 ‘인재’를 발굴·육성 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이 지사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합평골프고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문 학교”라며 “선배들이 전 해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키고 분발해 스스로의 명예를 높이면, 학교

의 명예도 높아지고 전남도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특수목적고로 지정된 합평골프고는 오는 2018년 학교면 학다리고 부지로 옮겨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시설을 갖추게 된다.

매년 10월 골프경기와 20명, 골프지도과 20명, 총 40명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 114명 중 절반 가량이 타지역 출신이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이 지사는 4일 오후 정부의 복합리조트 사업 대상지역 선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복합리조트 사업에는 여수 경도를 포함, 전국 9개 지역이 경합하고 있다. 이 지사는 “휴가 기간이지만 복합리조트 대상지역 선정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선정이 끝날 때까지 필요할 경우 서울을 오가며 유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지노·야영장업 허가 기준 대폭 완화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

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시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공공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과, 도로구역 등지에서는 허가 없이 목재와 대나무를 뿔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새 마음으로 속도전”... 하반기 국정운영 시동

휴가 후 국무회의...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추진 광복 70주년 자긍심 갖고 문화융성 정책 매진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매진해주시길 바란다”며 하반기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마음’과 ‘속도전’을 하반기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당면 최대 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 “더 많은 청년들이 정규직

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기득권을 좀 더 양보”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 추진의 선결 과제인 노사정위원회의 재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기 후반기에

문화융성 정책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다시 찾아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 휴가기간 읽었던 미국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책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잘 기술돼 있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이며 우리 국민의 저력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K 팝을 비롯한 한류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선도적으로 시작하면서 인정을 받아왔지만, 그것들을 무한한 연속성과 창조성, 우리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저평가하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 중 하나”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뿐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시 용역근로자 고용 전환 추진에 산하 공기기업들 인건비 증가 등 속앓이

광주시가 청소·경비 등 용역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 전환을 추진하자, 산하 공기기업들이 향후 늘어날 인건비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지만 과도한 인건비 증액 등으로 인해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와 산하 공기기업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계약이 끝나는 용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대상은 위탁 업무원 167명을 비롯해 청소담당 75명 등 모두 337명에 달한다.

당장 9월부터 전환할 대상만도 287명으로 철도기관사 등 정규직 550명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이다.

직접고용 대상자 숫자는 연말 용역 계약이 만료되는 광주도시공사 근무자 70여명 등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23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총 1300여명에 달한다.

정규직 전환은 민선 6기 운영한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시는 본청에 이어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까지 직접 고용을 전두지휘하고 있다. 앞서 본청에서 청소 및 시설 근로자 7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밝은광주안과 의원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과 / 소아안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